



유럽의 광우병 파동

- 홍 보 부 -

프랑스의 할인판매장에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시작한 유럽지역의 광우병이 일파만파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전역이 광우병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15개국은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식물성 사료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쇠고기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세계 쇠고기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할인매장 까르푸 광우병 감염 가능성 있는 쇠고기 판매

유럽의 광우병 감염 공포는 2000년 10월 9일부터 프랑스 북부와 파리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대형 할인 판매점인 까르푸에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1톤을 판매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후 26일 프랑스 정부는 까르푸가 판매한 쇠고기 1톤 이외에 감염 의심 쇠고기를 구입한 회사가 10

개 정도로 약 8톤 가량의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프랑스 전역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쇠고기는 사육정지 처분을 받은 농가로부터 부정하게 구입된 것으로 검사당국은 쇠고기를 식육처리장에 반입한 업자들을 10월 21일 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 여파로 인해 유럽연합내 쇠고기 소비량은 급속히 감소해 프랑스 정부는 쇠고기 소비 캠페인을 벌이기 까지 했다.

유럽연합 위원회 긴급히 대책 마련 부심

지난 199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유럽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던 광우병이 지난 10월말 프랑스에서 광우병 감염 의심 쇠고기 판매로 광우병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은 2001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EU는 이미 제조된 동물성 사료 폐기, 대체사료 확보 등의 비용으로 20억 유로(한화 약 2조4백억원)가 들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유럽지역의 돼지와 가금류 생산비는 약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사료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사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국제 옥수수, 대두박 가격 상승으로 2001년도 사료가격은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국가들의 피해와 반응

프랑스

199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영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3년 이후 유럽연합은 더 이상 영국산 소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자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였다.

그러나 이번 광우병 감염 의심 쇠고기 파동으로 그동안 광우병 청정국이라고 자부하던 프랑스는 제2의 광우병 파동 발생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광우병 감염 의심 쇠고기의 유통으로 프랑스내에서 쇠고기 소비량은 40% 가량 하락했으며 정부는 광우병 대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독일

이번 광우병 감염 파동으로 인해 유럽연합 국가중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그동안 광우병 발생이 전혀 없던 국가로 11월 24일 독일 북부 지방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총 3건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 독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독일 정부는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12월 2째주부터는 생후 30개월 이상인 모든 도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독일의 광우병 발생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과 인접해 있는 오스트리아는 독일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 스페인, 이란 등은 독일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독일 국민들은 자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쇠고기 소비량을 70% 이상 줄였으며 EU가 소시지에도 소의 뼈부분에서 발라낸 고기가 첨가되어 있어 인간 광우병 감염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자 소시지의 섭취를 금지했다.

기타 국가들

이탈리아는 광우병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쇠고기 수요가 급감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독일의 첫 광우병 발생과 동시에 스페인 북서부지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 발생을 시작으로 2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쇠고기 판매량이 50%까지 급감했다.

이같이 10월 중순경 시작된 유럽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동물성 사료의 사용 금지는 곧 사료값의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유럽연합(EU)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대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물성 원료가 차지하던 비중을 대두로 대체한다면 많은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유럽연합은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산 유전자변형(GM) 대두를 수입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일지도 모른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섭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간 광우병의 급속한 확산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 광우병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2명으로 프랑스에서 2명, 영국에서 80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유럽연합내 이병에 감염된 사람은 8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